

감로이슬성신을 내리는 자가 구세주

생명을 걸고 매달려야

사과나무에는 반드시 사과가 열리고 대추나무에는 반드시 대추가 열리죠?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구세주의 열매는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지 죽음의 열매는 맺지 않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생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은 영생나무에 달리지 않은 과일인 영생의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위에 구세주가 틀림없이 왔다면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인 것입니다.

승리제단에서 구세주가 역사하는 것은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함인 고로 시시하게 움직이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세계 만민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희미하게 움직이던 사람들은 전부 곤란함을 겪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이제 그대로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이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생명을 걸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에 죽음을 받아서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영생이 귀중한 줄 안다면 1초 1초 생명을 걸고 매달려야 영생의 역사를 알면서도 생명을 걸고 움직이지 않는 자는 결국 축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구세주가 틀림없다는 증거를 보여줬죠? 감로이슬성신을 내리는 자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니 하늘에서 이슬만나기 내렸고 그 이슬만나를 40년간 먹고 살았다는 성경 기록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구세주가 모세인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장차 나타날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는 구원을 얻겠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2절에 쓰여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감로이슬성신을 내리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마냥 거짓말만 하는 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인 줄 몰라보면 지옥에 가야 망명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장차 나타날 것이니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던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긴자가 되지는 못했어도 장차 이긴자 구세주가 나타나서 역사할 그림자로서 역사를 했던 고로 모든 인간들이 이제 그대로 구세주를 확실히 믿고 따르게끔 구세주의 증표가 바로 감로이슬성신이라고 하는 것을 수천 년 전에 보여줬는데도 오늘날 감로이슬성신을 내리고 있는 구세주를 몰라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는 지옥을 가야 마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그마치 6천년 동안 모든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6천년 만에 진짜 구세주가 나타나서 영생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도 귀중한 줄 모르고 생명을 걸고 매달리지 아니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가지도 못하고 구원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생미특불이 나타나면 생명을 걸고 따르라."고 했다는 말씀이 불경에 쓰여 있죠? 생명을 걸고 따르라는 말은 이제 그대로 적극적으로 구세주를 따르고, 적극적으로 구세주의 말씀대로 복종하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몸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그러고도 하나님에게 전체를 맡겨야 구원이지만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은 자는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초창기에 그와 같이 말씀한 것은 내 몸과 생명과 마음과 모든 전체를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제 그대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구세주 조희성님

에게 반납을 해야지 반납을 안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랬죠? 도둑질하는 사람이 구원이 있겠어요? 생명을 걸고 매달리고 생명을 걸고 따르라는 말은 모든 생명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과 내 마음과 몸과 모든 전체를 하나님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가 하나님 피예요, 여러분들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가 자기 피예요? 하나님 피죠? 피가 하나님 거니까 나의 몸도 당연히 하나님 거죠? 나의 몸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만큼 도둑질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언제 한번 내 주머니에 돈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이만 제단에 가서 예배 볼 때에 주머니에 돈이 10원이 있든지, 10만원이 있든지, 100만원이 있든지, 1,000만원이 있든지, 1억이 있든지, 2억이 있든지 몽땅 바치고 왔다고 그랬죠? 몽땅 바치고 이 사람이 차비가 없는 고로 이만제단 원호로 47에 서부터 걸어서 제1한강교를 건너, 노량진을 거치고 신길동을 거쳐서 영등포에 있는 잠까지 걸어 다녔다고 그랬죠? 그

래서 신발이 한달도 안돼서 다 닳는 고로 새로 사 신어에만 하는, 이와 같은 생활을 시종일관 했던 것입니다.

그러서 영모님이 "역곡에 이긴자가 아니면 끌어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는 자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랬죠? 그 당시에 전도관 식구들이 150만 명이나 되는 가운데서 한 사람밖에 은혜를 뺏기는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셨던 거죠? 나중에는 이 사람의 이름까지 대고 "조희성은 문선명 이보다도 굉장한 쉼 것을 한다."고 하시면서 "조희성이 전 세계적 마귀역사가 아니냐."라고 하셨죠? 마귀역사가 아니라면 무슨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나 전도관 식구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영모님이 그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잔뜩 담아줘서 보낼 거야." 그 래놓고는 조희성을 자랑했죠? 그러니까 전도관 식구들에게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게 분명하죠? 기쁨을 잔뜩 담아줘서 보낸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조희성을 자랑했는데, 조희성을 마귀라고 친 것이라고 듣는 귀가 그게 마귀 귀예요, 사람 귀예요? 마귀 귀죠?

분신으로 움직이는 세 번째 이긴자

그 당시에 그토록 영모님께서 입을 흘러 큰소리로 외쳤지만,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사에서 두 달 만에 의인이 되었으면 굉장한 능력을 가진 거죠?" 하시면서 자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소사(素砂)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당시에 해와 이긴자와 아담 이긴자 두 사람이 의인이 되어 소사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밀실에서 그 두 사람만 있었지 세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영모님이 말씀하신 두 사람이 바로 해와 이긴자와 아담 이긴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람은 분신으로 움직인다."고 하셨죠? 세 번째 사람이 맨 꼬리인데 그 세 번째 사람이 분신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완성자니까 이제 그대로 구세주로서 분신으로 움직여야 세계 만민을 구원할 수 있지, 분신으로 움직이지 않고는 만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살릴 수가 없죠? 그러고도 영모님은 하실 말씀을 다하셨죠? 그러시면서 당시에 영모님을 따르던 전도관 식구들에게 "생수 먹고 짓밟은 고로 무량대수마귀가 들어간다면 끌어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는 자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랬죠? 그 당시에 전도관 식구들이 150만 명이나 되는 가운데서 한 사람밖에 은혜를 뺏기는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셨던 거죠? 나중에는 이 사람의 이름까지 대고 "조희성은 문선명 이보다도 굉장한 쉼 것을 한다."고 하시면서 "조희성이 전 세계적 마귀역사가 아니냐."라고 하셨죠? 마귀역사가 아니라면 무슨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나 전도관 식구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영모님이 그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잔뜩 담아줘서 보낼 거야." 그 래놓고는 조희성을 자랑했죠? 그러니까 전도관 식구들에게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게 분명하죠? 기쁨을 잔뜩 담아줘서 보낸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조희성을 자랑했는데, 조희성을 마귀라고 친 것이라고 듣는 귀가 그게 마귀 귀예요, 사람 귀예요? 마귀 귀죠?

영모님 말씀대로 다 집에 가라고 했을 때 집에 갔으면 영모님은 안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영모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나 면 바로 전도관 식구들이 것입니다. 영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그 책임이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가 있는 전도관 식구들에게 있는 고로 전도관 식구들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관 식구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도관에서 무슨 관장이라고 해도 못 오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문을 닫은 다음에는 전도관 식구를 아무리 전도해 와도 들어오지 못하고 반드시 지옥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모님이 말씀하기를 생수 먹고 축복받은 사람들 다 지옥 가고, 전도관 관장들도 전부 지옥 간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 하나 키우는 사명을 가진 영모님

영모님의 사명은 구세주 키우는 데 있

는 것이지, 전도관 역사를 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관에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세주 하나만 나오면, 당신의 사명이 끝나는 고로 그 다음부터는 전도관을 없애기 위해서 "전도관 간판을 내리고 천부교로 붙여라." 그 다음에는 "중앙교회로 간판 붙여라." 그랬던 것입니다. 3-40년간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신 분이 중앙교회로 간판을 바꿔 붙이라고 하셨다면, 그게 바로 '너희들은 마귀당이 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모님이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수십 년간을 외치셨는데 왜 중앙교회라고 간판을 바꿔 붙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중앙교회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해놓고 중앙교회라고 간판을 바꿔 붙이라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모님이 "이 독사 새끼들!" 이라고 하셨는데, 독사가 하나님이에요? 마귀죠? "독사 새끼들!" 하시면서 다 집에 가라고 그랬죠? 집에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영모님이 그 마귀들 속에서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영모님이 키우신 이긴자 구세주가 <소사 신앙촌>에 있는데, 마귀가 해칠까봐 턱소로 신앙촌을 옮기셨지만 거리가 가까우니까 소사 신앙촌으로 자주 오는 고로 저 멀리 천릿길이나 되는 부산 기장으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기장 신앙촌>에 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마귀 새끼들이 다 천년 성에 들어가려고 기장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기장이 천년성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사실 영모님은 그림자로서 신앙촌 세 개를 세웠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지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상징인 영모님이 천년성이었고, 해와 이긴자의 몸이 이전 년성이었고, 삼천년성이 아담 이긴자의 몸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해와 이긴자가 이루어진 다음 전도관 식구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턱소 신앙촌> 제단 정문마다 여자 나체를 조각해서 붙이라고 하니까 그 나체를 만들어서 붙인 짐사기 영모님을 비롯하면서, "눈길로나 마음 길로나.."

4면 상단에 계속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단지파가 기업을 땅을 분배받게 되자, 정착 제비를 뽑아 땅의 기업을 나누어주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만 오갈 데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충직함과 사심이 없는 희생에 크게 감동하고,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업을 땅을 물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읍 담낫 세라를 요구할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백성들은 담낫 세라를 여호수아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땅 나누는 일을 마친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담낫 세라로 가서 그 성읍

1 여호수아가 물려받은 기업의 땅, 담낫 세라는 단지파와 에브라임지파의 경계에 있는 가아산 북쪽의 성읍입니다. 담낫 세라의 북쪽에는 가나시내가 가로놓여 있는데, 그 가나시내 너머

를 재건하고 거기에 정착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방의 적군으로부터 지키시고 평화를 주신지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도 점점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는 담낫 세라의 동쪽 20킬로미터쯤에 있는 실로에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 들레의 여러 나라들에 행하신 일을 모두 보아 왔소 나는 요단강에서부터 헤지는 쪽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 있는 모든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을 각 지파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 사람들을 내쫓고 여러분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힘써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여야 하며, 율법을 저버리고 딴 길을 걸어서는 안 되요. 순수한 이스라엘 활동을 보려는 에브라임지파의 땅입니다."

《8장 여호수아》 5절: 나이 많은 여호수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남아 있는 이방인들과 사귀지 마시오.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신을 두고 맹세하거나 섬기거나 절해서는 안 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 온 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고도로 사모하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이방인과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방 사람들을 내쫓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의 함정이 되

어 고풍할 것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재적이 되어 여러분의 배를 후려치고 가시가 되어 여러분의 눈에 박힐 것이요. 마침내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기쁜 땅에서 망해버리고 말 것이요. 나는 금명간 죽을 것이요. 아무쪼록 마음 속 깊이 뱃속에서 새겨 두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도록 마음을 다하여 지켜라. 이 땅에 남아 있는 이방인들과 사귀지 마시오.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신을 두고 맹세하거나 섬기거나 절해서는 안 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 온 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고도로 사모하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이방인과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방 사람들을 내쫓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의 함정이 되

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앞에 앞도려 절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미칠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기쁜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이끌어가는 간부들에게 그의 고별사를 남기고 그의 집 담낫 세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에발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세겜으로 소집하였습니다. 소집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고별사를 낭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주신 역사를 모든 지파의 사람들에게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게 하신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병기와 마병에 추격당해 흉허에 다다라 오도 가도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병사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한 일도 논

에 생생하게 나타날 정도로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올라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신 일과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저주를 부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일 등을 상기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로 하여금 상기시킨 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저콧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우버리고 여호와만 섬기시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콧게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콧게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계속) 안젤라